

# 아크라 행동계획(AAA) 채택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

최 성 호 /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장

2008년 9월 2일부터 3일간 130여 개국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3차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고위급회의' (The 3rd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에서 채택된 아크라 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알아본다.

## I. 개괄

서부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인구 2,260만 명의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는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가나, 라이베리아, 온두라스 등 수원국 3개국 정상을 비롯하여 공여국, 신흥공여국 및 수원국의 각료급 인사, 국제기구 대표, 시민사회 등 130여 개국(기관)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고위급회의' (The 3rd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가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는 2005년 제2차 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된 원조효과 제고에 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간 점검하는 각료급 회의로서 본회의 및 9개 원탁회의에서 실질적인 원조효과 개선 및 원조의 질적 제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회의 최종일에는 파리선언의 2010년 목표달성을 촉구하기 위한 아크라 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을 채택하였다.

우리 정부는 오준 외교부 다자외교조약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기재부, KOICA, 수출입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non-DAC 공여국 대표로서 원조효과 제고 방안 관련 우리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우리측 수석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의 과거 개발경험에 비추어 원조의 질적 제고

와 효과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파리선언과 원칙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전통공여국, 신흥공여국, 수원국을 포함한 모든 개발협력 주체들의 오너십 강화와 상호보완적 역할의 필요성,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comprehensiveness) 및 각 개별주체별 역량과 상황을 고려한 신축적 접근(flexibility)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0년 OECD/DAC 가입을 앞두고 수원국과 공여국의 경험을 모두 갖춘 우리나라가 원조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개발협력 노력을 강화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 Ⅱ. 원조효과성 제고 논의배경- 왜 원조효과성인가?

1990년대 후반기 이후 개발원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협력의 목표설정이 개발재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증시하는 원조의 질적 수준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기존의 원조관행에 대한 자성과 함께 특히 2015년 천년개발목표(MDGs)의 세부지표를 목표 시한 내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원조성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원조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개발원조가 기존의 원조공여국 개발체제에서 수원국의 오너십 확립과 공여국과 수원국간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사업단위 원조방식(Project Approach)에서 중기프로그램(Medium-term Program)으로 원조내용이 변화하며, 최근 들어 급속히 성장하는 신흥공여국, 글로벌 펀드, 시민사회와 같은 새로운 원조주체들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의 강화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는 등 21세기 원조체계(Aid Architecture)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발원조사업의 이행(Output) 자체보다는 사업을 통한 해당 분야의 결과 및 개선사항(Outcome), 파급효과(Impact)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 Ⅲ. 파리선언의 이행 상황

국제사회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몬테레이 컨센시스’(2002년), ‘원조조화를 위한 로마선언’(2003년), ‘개발성과 관리를 위한 마라케시 공동메모랜덤’(2004년)을 도출하였으며, 이의 종합판인 ‘원조효과 제고에 관한 파리선언’(2005년)을 발표하고 2010년까지 이행키로 합의하였다.

파리선언은 크게 5대 원칙 및 5대 원칙의 성과지표로서 2010년까지 달성목표를 설정한 12개의 측정지표로 구분

된다. 첫째, 공여국은 수원국 리더십을 존중하고 수원국은 개발전략의 입안 및 이행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수원국의 오너십(Ownership), 둘째, 공여국은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원조를 일치시키고 강화된 수원국의 시스템의 활용, 수원국의 정부조달 시스템의 강화, 원조의 언타이드화 등을 규정한 원조의 일치(Alignment), 셋째, 공여국은 원조활동에 대한 공동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원조절차를 간소화하며, 보다 효과적인 원조의 분업 (division of labor) 등을 제시한 공여국간 원조조화(Harmonization), 넷째, 공여국은 수원국의 개발전략 수립과 자원을 성과에 연계시키고, 수원국은 성과 중심적 보고·평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과중심의 관리 (Managing for results), 다섯째, 공여국은 수원국 정부가 의회 및 국민에게 예산보고를 할 수 있도록 원조제공에 대해 투명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원국은 국가개발전략 이행 및 평가에 다양한 개발주체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여국과 수원국간 상호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 등이다.

## 1. 수원국의 오너십

수원국이 개발 정책, 전략 및 원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주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오너십과 관련, 대부분의 수원국에서 국가개발정책 및 전략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부문별 전략과 성과중심의 분권화된 운영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데는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너십에 대한 지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부 정치, 행정시스템의 제약도 큰 편이다.

## 2. 원조의 일치

공여국 위주의 일방적인 원조가 아닌, 수원국의 개발전략, 제도 및 절차에 맞게 원조를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원조의 일치와 관련, 수원국 우선순위에 따른 원조에는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사업 수행기관의 중복을 줄이고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는 미미한 실정이다. 정책 및 전략단계에서의 일치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실제 운영·시행단계에서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3. 공여국간 원조조화

공여국간 원조활동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원조조화의 문제는 원조의분업을 통한 회원국 간 조화를 강조한 EU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가시적인 진전도 퇴보도 없는 상황이다. 원조조화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수원국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며, 다른 원칙과 마찬가지로 수원국 리더십, 이니셔티브 및 지원이 필수적이다.

#### 4. 성과중심의 관리

성과중심의 관리와 관련, 수원국 통계역량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위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여국 역시 수원국 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지원함과 동시에 자국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5. 공여국 · 수원국간 상호책임성

상호책임성과 관련, 원조효과 제고 성과를 측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여국은 원조에측성 강화를 위해 원조제공 관련 투명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수원국과 공여국은 원조효과성 관련 합의된 상호 이행성과를 공동 평가해야 한다.

### Ⅳ. 아크라 행동계획(AAA) - 파리선언의 보완

금번 아크라 고위급회의에서는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국제원조체제에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의 제반 원칙들의 논의 확대와 현실적 이행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측은 변화하는 국제원조체제 정립을 위해서는 각 개발주체간 정보공개 등을 강화하여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고 포괄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현실적이고 신축적인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즉, 전통공여국이 non-DAC 공여국의 개발역량을 지원하고, 신흥공여국을 국제원조체제에 편입시키며, 남남협력, 삼각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공여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AAA는 첫째, 개발에 대한 수원국의 Ownership 강화, 둘째, 효과적,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구축, 셋째, 개발성과 도출 및 책임강화 등을 핵심시안으로 수원국 주도의 원조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AAA는 130여 개국(기관) 각료급 인사들의 참여하에 다양한 개발 파트너와의 포괄적 협의과정을 거쳐 채택함으로써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정치적 의지 강화의 계기가 되었으며, 2005년 파리선언에 비해 수원국 시스템의 활용, 원조 예측가능성 개선 등 수원국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금번 AAA 채택으로 그동안 이행성과가 미진한 파리선언을 보완하여 2010년 목표년도까지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이행점점이 진행된 예정이며, 현행 국제원조체제에서 각 개발협력 주체는 수원국의 Ownership 제고 및 역량강화,

공여국과 수원국간 상호책임성 강화 등을 통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원조효과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 AAA의 주요내용 및 우리의 이행계획 방안

금번 AAA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향후 이행계획 추진방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동 추진방안은 아직은 정부차원에서 확정된 사항이 아닌 검토단계이며, AAA도 파리선언과 함께 OECD/DAC의 원조 작업반 주도로 중간평가 등 이행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 가. 수원국 오너십 제고 및 수원국내 개발정책대화 활성화

(제13항 Ownership, Country-level policy dialogue on development)

수원국	공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원국 정부는 의회,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국가개발정책 및 계획 수립·이행</li> <li>개발정책 및 프로그램을 인류공동문제(cross-cutting 이슈) 관해 합의된 국제공약에 일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여국은 수원국내 개발정책대화 존중 및 촉진</li> <li>원조 프로그램과 개발정책을 성평등, 인권, 장애,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 인류 공동문제에 관해 합의된 국제공약에 일치</li> </ul>
<p>(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대화 존중 및 촉진</li> <li>인류전체의 공동문제별 우리 기본정책 수립 및 개발정책에 반영 모색</li> </ul>	

- 원조 프로그램과 개발정책을 인권, 환경, 성평등 등 인류 공동문제(cross-cutting issues) 관련 합의된 국제공약에 합치되도록 이행
  - 성평등, 인권,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효과적인 사업 발굴 및 원조시행기관 practices 개선, 역량강화

### 나. 역량강화 및 기술협력 제고

(제13b항 & 제14항 Capacity development and Technical cooperation)

수원국	공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원국은 역량강화가 필요한 분야를 선별하고 역량개발 전략 수립</li> <li>수원국과 공여국은 공동으로 기술협력 사업을 선별, 관리하며, 지역자원 활용을 촉진하고, 보다 효과적인 역량강화 위해 사업운영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여국 자신의 역량강화</li> <li>의회, 중앙·지방정부, 시민단체, 연구기관, 언론 등 수원국 역량강화지원 대상 다변화</li> <li>수요중심의 기술협력, 역량강화 사업 운영을 위해 수원국과 공동으로 기술협력사업 선별, 관리 및 남남협력 등을 통한 수원국내, 역내 전문성 촉진</li> </ul>

(공통사항)

- 우리의 개발역량 강화
- 기술협력 사업 공동 결정 및 남남협력 활성화 지원

■ 우리의 포괄적 개발협력 능력배양 강화 계획 수립

- 지역별, 분야별 전문성 강화 등 원조집행기관 역량 강화 추진

■ 수원국 역량강화 지원대상 다변화

- 주요 수원국에서 의회, 지방정부,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추진

■ 수원국 수요에 기반한 기술협력(IC), 능력배양(CD) 사업 효율화 추진

- 남남협력 통한 역내 기술협력 촉진 지원 방안 수립

다. 수원국 시스템 사용 강화 (제15항 Country systems)

수원국	공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국은 공여국과 함께 자국 시스템의 질을 평가하고 개혁 프로그램 선정과 우선순위 결정을 주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분야 지원사업시 수원국 시스템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 수원국 시스템 미사용시 그 사유 공개 및 정기적으로 재검토</li> <li>• 공여국은 수원국과 수원국 시스템의 질을 공동 평가</li> <li>• 수원국 시스템 사용 계획 즉시 수립</li> <li>• 정부간 지원시 2010까지 수원국 재정 시스템 50%이상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조의 66%를 프로그램 원조로 지원한다는 파리선언 공</li> </ul> </li> </ul>
<p>(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국 시스템 사용 확대 계획 수립 - 예산지원(budget support) 검토 &amp; 수원국 재정 시스템 확대 사용 계획</li> <li>• 프로그램 접근 원조 강화</li> </ul>	

■ 수원국 시스템 사용 제고 Roadmap 수립

- 사용 검토대상 수원국 시스템의 구체적 범위 결정 및 일본 등 주요국 사례 검토

- Roadmap 수립

- 수원국 시스템 공동평가 실시 → 수원국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체계적 기술협력 실시 → 중점 수원국별 시스템 사용 확대 중장기 맞춤형 계획 수립 → 수원국 시스템 미사용시 사유 공개 및 정기적으로 재검토 → 현지 직원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훈련 제공

☞ 수원국이 신뢰할 만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수원국 주인의식 및 능력배양을 위해 수원국 시스템 활용 강화

※ 시스템 미사용시 이유 공개 및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내부 지침 수립

○ 수원국 시스템 공동평가 실시

– 일본 또는 호주, 아시아 수원국과 공동평가 우선 추진 검토(삼각협력방식의 수원국 공동평가)

– 수원국 시스템 사용 시범(pilot) 국가 선정

○ 수원국 시스템 질 개선 위한 체계적 역량강화 지원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추진

– 일회적 기술원조를 지양하고 기술원조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원국 시스템 질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모색

#### ■ 프로그램 접근 강화(program-based assistance: PBA)

○ 전략적 이해관계 분야가 같은 공여국(중간소득국가 포함)과 pilot 국가를 대상으로 공동기금 조성 등을 통한 PBA 공동사업 추진 검토

– 중장기적으로 '선택과 집중' 원칙에 기반, PBA 사업, 예산지원 추진

○ 예산지원(budget support) 활용 검토

### 라. 원조 분산화 감소 (제17항 Reducing aid Fragmentation)

수원국	공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원국 주도 원조조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조효과작업반 주도로 원조분업 원칙 모범사례 수립</li> <li>2009.6월까지 국제 원조분업 및 원조 소외국 문제 논의 시작</li> </ul>
(공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조분업</li> <li>개발협력 조화(coordin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계획 수립</li> <li>원조효과작업반 참여</li> </ul>	

#### ■ 원조분업 관련 향후 논의내비 우리 입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 우리의 중점지원 지역, 국가, 분야 재검토 중점지원국 축소방향 수립

– 국제원조분업 논의가 우리 ODA 정책과 사업에 미칠 영향에 포괄적 분석

○ 일본, 호주 등과 아시아지역내 원조조화(harmonisation) 논의 참여 검토

– EU, 유럽 국가 등이 주도하는 논의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 마련

○ 수원국내 공여국회의 참여 강화와 공동협력 사업 확대

■ 원조효과작업반 참여 추진

- 2009.6월까지 시작할 원조효과작업반 주도 논의에 적극 참여
- 원조효과작업반 회원자격 변경, mandate 개혁작업 예의주시, 참여 추진

**마. 원조의 가치제고** (제18항 Increasing aid's value for money)

수원국	공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국제적 합의 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조 언타이드 구체 계획 수립, 조달절차 투명성 강화 및 현지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지원</li> <li>•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국제적 합의 준수</li> </ul>
<p>(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무상 원조의 언타이드 구체 계획 수립 및 이행</li> <li>• 조달제도 선진화</li> <li>• CSR 홍보 강화</li> </ul>	

■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유·무상 원조 언타이드화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이행

- DAC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비구속성 원조 확대 계획 수립, 추진
  - 최빈국 및 HIPCs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

■ 조달시장 선진화, 투명화 계획 수립 및 이행

■ CSR 관련 관련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인식제고 위한 홍보계획 수립

**바. 개발 파트너 확대·포용** (제19항 Enlarging the tent - welcoming all development partn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남협력 포함한 모든 개발 행위자들이 파리선언 원칙 준수</li> <li>• 중간소득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삼각협력 촉진</li> <li>• 글로벌 펀드는 분야별 정책과 제도 개선을 원조 일치, 조화 참여 및 기존 원조채널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남협력 지원</li> <li>• 삼각협력 활성화</li> <li>• 글로벌 펀드 정책 마련</li> </ul>

■ 남남협력 지원 계획 수립

- ODA 사업에 남남협력 활용 제고 방안 모색



■ 삼각협력 활성화 계획

- 프로그램 접근 확대, 원조분업 논의 등에 능동적 참여 위한 삼각협력 활성화 추진

■ Global funds, programme 지원관련 원조효과 제고위한 종합정책 수립

- 중점 지원분야 글로벌 펀드 선별, 중점 지원

사. 시민사회 참여 제고 (제20항 Civil soci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단체의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 제공</li> <li>• 정부 프로그램과의 조율, 시민단체의 결과에 대한 책임성 및 시민단체 활동 정보공개 강화 등을 위해 공동 노력</li> <li>• 시민단체의 관점에서 파리선언 원칙 준수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단체의 파리선언 원칙 준수 촉구</li> <li>• 시민단체 기여 강화 환경 조성</li> </ul>

■ 시민단체 역량강화 지원 전략수립

- 시민사회와 원조정책에 대한 대화 확대
- NGO 통한 ODA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방안 수립

■ 수원국 시민단체 지원 및 활용 제고 방안 수립

아. 취약국가 개발원조정책 개선 (제21항 Fragile situ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수준에서 공여국과 수원국은 자발적으로 취약 국가와 상황에서 모범 국제개입 원칙(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and Situations) 이행을 모니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공여국은 수원국 당국 등과 거버넌스 및 능력 공동 평가, 분쟁 · 취약 · 불안의 원인 조사 실시</li> <li>b) 현실적인 평화 및 국가건설 목표 수립, 분쟁 · 취약상태의 근본 원인 해결, 여성 보호 및 참여 보장</li> <li>c) 핵심 국가기능 및 조기 복구를 위한 수요 중심의 맞춤형, 조율된 능력배양 지원 제공</li> <li>d) 유연하고 신속한 장기적인 공동의 자원조달 방식 수립, 적절한 경우 인도적 지원, 복구지원을 장기 개발지원과 연계 및 안정화, 포괄적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과 연계, UN 시스템,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파트너십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 · 분쟁국가 원조정책</li> <li>• 인도적 지원과 ODA 연계 강화</li> </ul>

■ 분쟁 및 취약국가 원조시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and Situations' 적용 현황 파악

- 분쟁 및 취약국가 ODA 지원시 동 원칙 반영 강화

■ 분쟁 및 취약국가관련 ODA 전문성 제고

**자. 성과 관리** (제23항 Managing for results)

수원국	공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 시스템 개선 - 비용효과적인 성과관리 수단 개발</li> <li>공여국과 공동으로 성과관리 수단 개발 및 다른 정보원과 조율,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원국 정보시스템과 공여국 모니터링 연계 및 수원국 통계능력, 정보 시스템 강화 지원</li> <li>체계적으로 제도적, 행정적 장애요소를 검토하여 원조효과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li> <li>현지 사무소에 충분한 권한 이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원국 정보 시스템 활용 및 통계, 정보 시스템 강화 지원</li> <li>현지사무소 권한 강화 및 원조효과 제고 위한 조직 변화 및 인센티브 제공</li> </ul>	

■ 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수원국 정보시스템 활용 증대

- 수원국 통계, 정보시스템 강화 지원 - 수원국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협력(TC)과 연계

■ 원조효과 제고

- 제도적, 행정적 장애요소 포괄적 검토 및 체계적 개선 추진
-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 원조기관 현지 사무소(country office) 권한 강화

**차. 결과에 대한 책임** (제24항 & 제26b항 Accountability for resul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여국은 원조 규모 · 분배 · 지출결과에 대한 정기적이고 상세한,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li> <li>수원국은 공공재정관리에 대한 의회 감독 촉진</li> <li>201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상호평가검토 추진</li> <li>2009년 말까지 국제 상호책임 검토 추진</li> <li>불법취득 자산 추적, 동결, 원상회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명성(transparency) &amp; 책임(accountability) 강화</li> <li>상호평가검토(mutual assessment review) 시행</li> <li>매년 ODA 공약 및 실적 집행액에 대한 완전하고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li> </ul>

■ 상호평가(mutual assessment) 검토 시행계획 수립

- 중점 지원국 중심으로 상호평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 원조 투명성 강화

- 수원국별 원조 규모 · 분배 · 지출 결과 정기적으로 공개

카. 원조조건 (제25항 Condition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여국과 수원국은 수원국 개발전략에 기반하여 원조조건을 상호 합의하고 공동 평가</li> <li>• 모든 원조조건 정기적으로 공개</li> <li>• 원조조건에 관한 모범 사례 검토 · 보급 및 시민사회 기여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조조건 개선</li> <li>• 원조조건 공개</li> </ul>

■ 우리 원조사업의 원조조건 부과 현황 검토 및 개선 추진

- ODA정책의 기본목표 수립 시 인류-공동문제(cross-cutting issue) 등 원조효과 제고 위한 원조조건 부과 검토

■ 조건(conditionality) 공개 강화

- 시민단체와의 협의 강화

타. 중기 예측가능성 (제26항 Medium-term predictability)

수원국	공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기획 과정을 강화하고 성과에 기반한 지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원조공약 및 실적 집행액 정보 공개</li> <li>• 중기(3~5년) 원조계획 체계적으로 제공</li> <li>• 중기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제대화 촉진 및 이행평가 수단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 원조 예측가능성 제고</li> </ul>	

■ 매년 원조공약 규모 및 실적 집행액 공개

- 범정부적 ODA 통계 시스템 강화
- 내년 초 원조공약 규모 및 전년도 실적 집행액 공개

■ 중기 예측가능성 제고방안 수립

- 우리정부의 중기 ODA 목표수립 및 이행점검
- 우선 중점협력대상국의 국별 지원전략(CAS) 수립시, 최소 제공 범위의 중장기 원조제공 공약을 포함하고, 원조효과에 대한 공동평가를 기초로 원조액 증감하는 방안 검토

○ ODA 사업을 중기단위 산업 중심으로 기획·집행 추진

- 수원국 수요에 부합하는 중장기 원조계획 수립 위해 수원국의 중장기적 원조수요 예측 능력제고

#### 파. 아크라행동계획 이행 (제28항, 제30항 & 제31항 Implementation of the AAA)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여국은 수원국의 국별 행동계획 수립 지원 (구체적인 시한설정 및 모니터링 가능한)</li><li>• 원조효과작업반이 2010년 파리선언 및 AAA 모든 공약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양한 개발주체가 참여하는 수원국과의 공동 파트너십을 위한 제도적 프로세스 개발</li></ul></li><li>• UN 시스템과 연계</li></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10년 파리선언, AAA 이행 모니터링 실시</li></ul>   |

#### ■ AAA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및 단계적 이행 추진

○ 관계기관(재정부, KOICA, 수은 등) 협의하여 각 공약사항별 입장 정립 및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 향후 AAA 해석과 이행에 관한 원조효과작업반 회의에 적극 참여

- 원조분업, 수원국 시스템 사용 등 쟁점 분야관련 전략적 이해관계 고려 여타 공여국과 공조체제 모색

○ AAA 및 AAA 이행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실질적 원조효과 제고 추진

- 관계기관, 공관, 시민단체, 기업 등 포괄적 접근

## V. 정책적 시사점

### 1. 원조추진체제와 운용의 선진화

오는 2010년 DAC 가입과 2015년 ODA 규모를 GNI 대비 0.25%까지 끌어올려(제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명실상부한 선진공여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우리 정부로서는 수원국 주도의 개발 지원,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원조조화 증진, 수원국 역량강화 지원 등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제원조규범을 준수하고 이를 모니터링, 평가할 수 있는 원조추진체제와 수행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원조사업의 발굴, 심사단계에서부터 원조효과를 예측하고, 사업의 진행 모니터링 및 평가까지 성과관리 중심의 원조사업 추진과 평가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시민사회 등 개발협력 주체들간 우리 개발원조의 선진화 노력을 위한 단계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2.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원조조화

금번 회의는 AAA 도출과정에서도 관찰되었듯이 유럽, EU 등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신흥공여국의 부상, 글로벌펀드, 시민사회 등의 역할증대 등 국제원조체제의 다양화와 변화추세가 반영되었다. 향후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간 상호책임성, 정보공유 강화 등을 위해 포괄적 파트너십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새로운 개발협력 모델 및 우수사례(best practices)를 적극 발전시켜 국제 개발 원조 논의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원국내 원조공여국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타 공여국과 상호 보완적인 원조를 시행하기 위한 ODA 정책대화를 활성화하여 우리의 개발역량을 증진시키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한다.

### 3. 시민사회의 개발역량 확충

한편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우리의 독특한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의 성공사례 및 노하우를 발전시켜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사업정책 분야의 개발컨설팅 확대 등 개발경험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수원국과 공여국간, 전통공여국과 신흥공여국간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 시민사회, 언론, 국제기구 등 비국가 주체의 참여가 두드러졌음이 확인되었는 바, 우리의 개발경험 공유 및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도 국내의 개발 NGO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개발원조 역량을 확충하는데 전략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KOICA는 무상원조사업의 효과제고를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확대를 위해 2008년도 민간단체지원 사업비(100억원)를 전년대비 109% 증액하였으며, 신규 협력사업으로 원조사업에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원조에 대한 이해증진과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NGO의 개발인지 교육지원 등 민간단체를 통한 '개발협력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